

완도 금일 건다시마 첫 위판...올해 생산량 높을 것으로 전망



금일에서 건다시마 풍작 기원제 및 초매식 가져 첫 위판 물량 14톤...1kg당 평균 9,500원에 거래

완도군은 지난 25일 다시마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금일읍의 금일수협 위판장에서 건다시마 풍작 기원제 및 초매식을 가졌다. 건다시마 풍작 기원제 및 초매식에는 다시마를 생산하는 어민들이 참석하였으며, 해양안정과 어민들의 안녕을 바라는 기원제를 올리고 건다시마 첫 경매를 개시했다. 첫 위판 물량은 약 14톤으로, 위판 가격은 1kg당 평균 9,500원으로 거래됐다.

최고 12,500원까지 거래되면서 예년에 비해 높은 값에 거래가 시작됐다. 다시마 채취는 7월 초까지 이어지며, 5월 초부터 생산돼 전년에 비해 생산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다시마 수확철을 맞아 어민들의 일손이 분주한 가운데 군에서는 올해 총 825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어가에 배치해 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완도군은 해조류의 본고장으로 지난해 다시마를 15만 톤이나 생산했으며, 이는 전국 생산량의 71%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청정해역에서 자란 다시마는 맛과 향이 좋으며 칼슘, 철분, 마그네슘, 비타민,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고, 특히 몸속 미세먼지와 중금속을 흡착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하는 알긴산도 함유하고 있다. 한편 전복 내장과 톳, 청각, 다시마, 미역귀 등 해조류의 추출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침투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 권위의 해양의학 분야 학술지인 '마린 드럭스'에 게재된 바 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흰 연기 없는 친환경 연무 소독으로 쾌적 환경 OK”

강진군, 11개 읍·면 방역소독반과 주4~5회 여름철 해충 집중 방역 강화

강진군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하천변, 웅덩이 등 방역 취약지와 인구밀집지역,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모기, 파리, 진드기 등 해충 박멸을 위한 여름철 집중방역소독에 돌입했다고 29일 밝혔다. 군보건소는 지난 5월부터 11개 읍·면 방역소독반과 함께 주 4~5회 이상 방역소독을 해오고 있다. 소독은 모기 활동이 활발해지는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수풀이

많은 외곽이나 모기가 산란하기 좋은 웅덩이, 연못, 하천, 풀숲은 연막소독을, 우수구나 차가 들어가기 힘든 곳은 휴대용 분무소독을, 인구밀집 지역 등은 인체에 무해한 연무 소독을 실시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 자연 친화적이며 인체에 해롭지 않은 연무 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 중이다. 연무소독은 친환경 방역소독 방식으로 물과 혼합된 살충제 입자를 수증기 형태로 분사해, 해충에 접촉 치사시키는 원리이다. 경유를 사용

하지 않아 환경오염이 덜하고 연막소독 시 발생하는 흰 연기가 없어 시야 가림이 없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기존 익숙했던 방역소독 시 발생하는 흰 연기가 보이지 않자, 소독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오해가 있어, 군은 연무소독의 이점을 각 읍면 담당자와 언론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다. 군보건소는 울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감염병 발생 차단을 위해 방역취약지역에 대해,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방역소독에 관한 문의는 보건소(☎430-5241, 5247)로 하면 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위탁운영자 모집

6월 5일까지 모집 기간...10월 정식 개관 예정

진도군이 국민들의 해양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체험 프로그램 및 유스호스텔'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운영자를 모집한다. 국민들의 안전문화 확산과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도군은 국민해양안전관 위탁운영자를 모집한 뒤 시범운영, 교육기관 홍보활동 등을 거쳐 오는 10월 정식 개관한다는 방침이다.

위탁 운영자 모집·접수 기간은 오는 6월 5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진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진도 국민해양안전관은 세월호 특별법에 의거해 지난 2019년에 착공, 올해 3월에 지

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463㎡ 규모로 280억원의 사업비로 완료했다. 올해 9월까지 홈페이지 개설과 생활밀착형 숲(정원)을 조성 후 10월에 개관 계획으로 전문기관 위탁을 추진중에 있다. 국민해양안전관은 수조에서 실제로 슬라이드 통틀 비상탈출, 선박 기울기 체험, 익수자 구조체험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13개의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운영할 계획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해남 매일시장 야시장 “대박났네”

해남군 첫 야시장에 볼거리·즐거거리 풍성...가족단위 방문객 북적



해남군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일 개최한 매일시장 야시장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매일시장 털어볼까'라는 주제로 해남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전통시장 야시장 행사는 시장 내 다양한 먹거리 판매와 함께 보이는 라디오 부스 운영, 경품 추첨 이벤트 등이 다양하게 열렸다.

특히 매일시장의 명물 먹거리인 통닭과 튀김, 분식, 국화빵 뿐 아니라 각 상점별로 취급하는 재료를 이용해 전과 과일·야채 묶음, 족발, 낙지, 회무침 등 안주거리를 판매하고, 어린이 솜사탕 기계까지 운영되면서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저녁내내 북적이는 특별한 광경이 연출됐다. 상가 중앙통로에 마련된 탁자들은 일찌감치 만석이 되어 준비된 재료가 조기에 마감되는 등 상인들도 난생처음 겪어보는 손님들의 물결에 함박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또한 먹거리 판매 외에도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한 보이는 라디오 DJ 부스 운영과 즉석 피아노, 색소폰 연주가 어우러져 밤나들이를 나온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장흥 장동면, 귀농·귀촌 어울림 멘토와 첫만남

장흥군 장동면 행정복지센터는 25일 장동면 귀농·귀촌 어울림을 위한 멘토·멘티를 결성하고 첫만남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문수연 장동면장을 비롯한 블루베리 재배농가(김성계), 작두콩 재배농가(김평길), 귀농인 연수생(문선자, 안수영)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 가운데서는 멘토·멘티 2팀이 결성됐다. 한 자리에 모인 멘토·멘티 들은 재배 작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 농업 습득을 위한 교육일정을 상호 협의했다. 간담회 후 블루베리 재배 현장을 방문하여 농장을 둘러보고 재배과정에 대해 간단히 설



명을 들었다. 향후 멘토·멘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장동면 산업팀으로 문의하여 참여할 수 있다. 장흥=김도영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